

중국 여자 유학생의 중국·한국 간 캐주얼스타일에 대한 디자인 선호도 비교분석

이 일 범·박 미 령**

목포대학교 의류학과 석사·목포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Analysis of Design Preference to Korean and Chinese Casual Style by Chinese Female Students in Korea

Yi Fan Li · Miryung Park**

Master's Course, Dept. of Clothing & Textiles, Mokpo National University

Prof., Dept. of Clothing & Textiles, Mokpo National University**

(2015. 3. 31. 접수; 2015. 6. 29. 수정; 2015. 7. 3. 채택)

Abstract

Analysis of design preference to Korean and Chinese casual style were made targeting Chinese female students in Korea. The following conclusion was derived from the result of final 300-copy survey data, using SPSS 18.0 program. The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t-test, chi-square independence test, ANOVA and Scheffe test.

Firstly, when comparing change of design preference before the stay in Korea with after the stay in Korea, the biggest change in their preference was character casual style, while the least change was easy casual wear. In terms of duration of stay in Korea, the biggest change was from the group of over 3 years, and in the order of the group of 1-3years, and then lastly less than 1 year, which suggests that the longer the duration of stay, the bigger the change. When comparing preferred clothing color before the stay in Korea with after the stay in Korea, both before and after the stay in Korea had the highest preference for achromatic colors. The frequency of change was mostly from achromatic color to other colors. In the preferred clothing pattern, 'plain' was their favorite one before the stay in Korea, while it turned to 'nature pattern' after the stay in Korea, followed by 'plain' one. In the textiles, the most preferred one was 'cotton', before and after the stay in Korea. However, their preference for cotton was lower after their stay in Korea than before the stay in Korea, and instead there was more preference for 'silk', 'synthetic fiber', and 'other' sources.

Key Words: Chinese female students(중국 여자유학생), Design preference(디자인선호도), Casual style(캐주얼스타일), Colors(컬러), Textiles(소재), Pattern(문양)

I. 서론

중국의 경제는 2000년과 2010년 사이에 일본

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2위의 경제대국으로 규모 면에서도 3배 이상 성장했다. 중국의 통계청(National Bureau Statistics)에 따르면 2011년 의

Corresponding author ; Miryung Park

Tel. +82-61-450-2535, Fax. +82-61-450-2539

E-mail : mrpark@mokpo.ac.kr

류시장의 규모는 7,955억 위안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2012년 1-3분기도 6,665억 위안으로 17.8% 성장세를 보였으며 이는 약 한국 의류시장 규모 대비 9배가 넘는 수준으로 전 세계 패션시장의 약 16% 정도 점유율을 차지한다(2012 China Apparel Market, 2012). 또한 세계 섬유생산, 수요, 무역 등에 있어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급상승을 보이고 있다. 섬유의 세계생산은 매년 확대되고 있으나 중국의 생산은 그 이상으로 증가를 보여 중국의 비중이 매년 급상승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인 중의 하나는 왕성한 중국의 국내수요라고 할 수 있다(중국의 1~2월 섬유생산동향, 2011). 이와 아울러 한국 패션기업의 중국 진출상황을 살펴보면 중국 의류시장이 1979년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한 이래 90년대 한국 패션기업들은 처음 중국시장에 진입하였다. 현재 국내 해외진출 브랜드 180여개 중 80% 정도가 중국에 몰려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중국 패션시장이 최근 빠르게 재편되고 있어 럭셔리 시장은 해외 유명 브랜드 파워가 강하게 나타나고 일반대중 시장은 중국내 의류기업과 일본, 유럽, 미국의 글로벌 SPA 패션 브랜드들이 장악하고 있어 한국 패션브랜드들의 시장경쟁력은 나날이 약해지고 있다.

특히 중국 소비시장에서 최근 고급화된 브랜드 소비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Y세대는 국가의 가족계획법이 정해진 이후 태어난 '80후 세대'를 중심으로 '90후 세대'이며, 중국의 총인구 중 2억 명 이상이 해당된다. 이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국제적인 회사에서 일하면서 외국인 직장 동료와 친구를 갖고 있으며, 일부는 여행이나 유학을 가기도 한다(중국의 인구변화와 주요 세대별 특징, 2011). 제15회 중국 국제교육 뉴스 발표회 정보에 따르면, 해외유학중인 중국인 유학생 수는 이미 100만 명을 넘었으며, 2005년부터 2009년 사이에 한국내의 외국인 유학생 수의 비율은 약 270% 증가했다(한-중 양국 함께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라, 2009). 그중에 국내로 유학 온 중국인 유학생은 2009년 10월 31일 기준으로 6만4천 300명으로서 전체 외국인 유학생(83480명)중의 77%를 차지한다. 특히 2008년 상명대학교 교내 중국 유학생 26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상류층 21.1%를 포함하여

99%가 중산층 이상으로 유학생 대다수가 중상류층 출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중국인 유학생은 '미래 친한파'인데, 2009). 이동훈(2009)은 중국의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과거 소비시장을 주도하던 '80后(80년대 이후 출생)세대'는 점차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으며 신소비층으로 海歸派(해외귀국인재)를 주목해야 되며 이들은 얼리어답터나 의견 선도자로 '걸어 다니는 광고매체'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소비시장의 트렌드를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 유학 온 중국유학생들의 한국패션제품의 디자인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는 것은 필요할 것이다. 그들의 특징은 한국과 중국의 패션제품을 경험한 집단으로써 그들이 기존 가지고 있었던 선호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자료는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이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유용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계 또한 중국 유학생에 관련된 선행연구(남영란외 2013; 자오링링, 2014; 유지현, 2009; 유대상, 2010; 김순분, 2009; 유국련, 김용숙, 2002; 홍금희, 유정, 2009; 정화연외, 2011; 정수진외, 2011)들을 살펴보면 주로 한국 패션제품에 대한 평가나 구매행동 및 구매실태와 착장실태에 관한 것들이 분석되어 있어 그들이 중국에서 가졌던 스타일 및 디자인에 대한 선호도가 한국에서는 어떻게 변화하는 지에 대한 비교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이에 대한 정보는 우리 패션브랜드가 중국에 진출 할 때 시행착오 없이 그들의 선호도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 여자 유학생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패션 스타일을 경험한 후 체류기간과 출신지역에 따라 패션디자인에 대한 선호도 차이를 밝힘으로써 중국 의류시장에 이미 진출했거나 앞으로 중국 의류시장을 개척하는 한국의 패션 브랜드들에게 구체적이며 효과적인 상품기획 및 디자인을 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디자인 선호도

디자인(design)이란 용어는 「도안·계획·고안·밀그림」 등의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으며 복식 용어로 소재(옷감)와 형(실루엣과 디테일)을 종합적으로 계획, 고안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Fashion Dictionary, 2014). 패션디자인의 요소란 하나의 의복이 완성되기 위한 요소로서 전체를 이루는 실루엣, 부분인 선 그리고 디테일, 트리밍, 색상, 소재, 문양 등을 의미한다. 패션제품에 있어서 디자인은 스타일이라고 할 때도 있으며, 이의 각 요소들의 특성을 다양하게 활용시켜 완성함으로써 착용자의 장식적, 심리적, 실용적인 요구를 만족시켜주며, 소비자의 좋고 싫음의 평가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중국 여자의 디자인 선호도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남영란 외(2014)의 연구에서, 선호하는 의복 스타일은 캐주얼 스타일이었으며, 색상은 무채색계열, 의복문양은 단색이었다. 이 중 체류기간에 따른 차이는 스타일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처음 1년 이하에서는 스포티한 캐주얼 스타일을 선호하다가 3년이 초과되어 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한국의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트렌디 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국련, 김용숙(2002)의 연구에 의하면, 중국 여대생은 개성적인 의복 스타일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활동적이고 우아한 의복 이미지 역시 선호하였다. 손희정, 김효숙(2000)의 연구에서 중국 여자 대학생은 무채색, 남색, 붉은색 계열 순으로 색상을 선호하고 소재는 면직물, 모직물을 선호하였으며 이는 한국여대생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오현아 외(2012)은 서울과 다롄시의 스트리트 패션에 나타난 여성 의복 색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상하의 모두에서 유채색보다는 무채색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김효숙, 이소영(2001)의 연구에서 북경시의 20세 이상 59세 이하 여성에게서는 외출복으로 캐주얼 스타일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선호컬러로는 흰색 아이보리색이 가장 높았으며 소재로 여름에는 면, 가을 겨울에는 모직물로 나타났다.

중국여성을 대상으로 한 디자인 선호에 관련한 선행연구 살펴보면, 동뻬이(2010)는 서울과 상하이의 여성 캐주얼 스타일을 비교한 결과 이지 캐주얼이 두 도시 모두에서 가장 선호하였으며 캐릭터 캐주얼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홍금희, 유정(2009)의 연구에서 중국 여자대학생들은 한국 패션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선호하는 이유는 유행성, 디자인과 스타일, 색상 등으로 나타났다. 위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중국여성들은 디자인과 스타일, 유행성의 중요성을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냈으며, 의류브랜드 구매시 중요도는 스타일이 가장 높았다. 스타일로는 캐주얼, 색상은 무채색, 소재는 면과 모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 여자대학생의 캐주얼 스타일에 대한 디자인 선호도 차이에 대한 분석요인으로는 스타일, 색상, 문양, 소재를 구성하였다.

2. 캐주얼 스타일의 분류

캐주얼(casual)이란 사전적 의미로 의복 등이 ‘평상복의’, ‘약식의’, ‘캐주얼의’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naver영어사전, 2014). 캐주얼 스타일은 소비자의 실용적인 패션추구 성향에 부응하는 실용성과 일상성이 동시에 고려된 스타일로, 언제라도 자유롭게 착용할 수 있으며 편안한 의복으로 정의된다(김해동, 2005).

국내 캐주얼웨어는 1980년대 교복 자율화가 시행되면서 청소년 캐주얼의 주니어를 중심으로 주도되었으며 1986년에는 수입브랜드 도입의 자유화조치로 인해 해외 유명브랜드의 도입이 급증하게 되었고, 90년대 후반부터는 주5일제 근무 시행, 기업들의 복장 자율화 그리고 최근 다양한 레저, 스포츠 문화를 즐기는 라이프스타일의 추구로 시장의 질적인 스타일 및 양적 확대를 가져왔다.

캐주얼 스타일이 과거에는 유니섹스 캐주얼과 영 캐주얼 정도로 분류되었지만 캐주얼의 선호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현재에는 남성이나 여성 캐주얼로 대별되기도 하고, 캐프츠 캐주얼, 모던 캐주얼, 패밀리 캐주얼 등과 같은 새로운 분류 용어가 등장되기도 하였다(이경림, 박숙현, 2008). 따라서, 캐주얼 분류에 관한 선행연구를

〈표 1〉 캐주얼 스타일에 관한 선행연구

| 연구자 | 캐주얼 스타일의 분류 |
|------------|---|
| 김민지(2002) | 트래디셔널 캐주얼, 이지 캐주얼, 진 캐주얼, 스포티 캐주얼, 아웃도어 캐주얼, 골프 캐주얼 |
| 김정은(2003) | 여성영캐주얼, 캐릭터 캐주얼, 타운 캐주얼 |
| 변미연(2005) | 유니섹스캐주얼, 진 캐주얼, 이지캐주얼, 스포츠캐주얼 및 감성캐주얼 (어패럴뉴스) |
| | 유니섹스캐주얼, 진캐주얼, 이지캐주얼, 스포츠캐주얼, 감성캐주얼, 중저가캐주얼, 볼륨캐주얼, 모던캐주얼, 멀티캐주얼, 캐포츠캐주얼, 패밀리캐주얼(2004/2005 한국패션브랜드연감) |
| 동배 외(2009) | 진 캐주얼, 이지 캐주얼, 캐릭터 캐주얼, 로맨틱 캐주얼 |
| 동 빼이(2010) | 이지 캐주얼(진 캐주얼), 로맨틱 캐주얼, 캐릭터 캐주얼 |
| 박선미(2012) | 이지 캐주얼, 볼륨 캐주얼, 트래디셔널 캐주얼 |

살펴보면, 변미연(2006)은 우리나라 패션 주요기관에서 캐주얼웨어의 분류에 대해 유니섹스 캐주얼, 진 캐주얼, 이지 캐주얼, 스포츠캐주얼 및 감성캐주얼 중저가캐주얼, 볼륨캐주얼, 모던캐주얼, 멀티캐주얼, 캐포츠캐주얼, 패밀리캐주얼로 분류하는 등 세분화추세를 소개하였고, 김민지(2002)의 연구에서는 한국 내에 캐주얼웨어 세분시장에 대해 트래디셔널 캐주얼, 이지 캐주얼, 진 캐주얼, 스포티 캐주얼, 아웃도어 캐주얼, 골프 캐주얼로 구분하였다. 동 빼이(2010)는 한국과 중국 여성의 캐주얼 스타일을 비교하는 연구에서 촬영한 자료 중에 의미 있는 빈도로 보이는 진 캐주얼, 이지 캐주얼, 캐릭터 캐주얼, 로맨틱 캐주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결과 <표 1>을 참조하여 중복된 아이템 및 이미지와 최근 사용되는 캐주얼 명을 중심으로 재정리하여 진 캐주얼, 이지 캐주얼, 캐릭터 캐주얼, 로맨틱 캐주얼로 분류하였으며 분류된 캐주얼 스타일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진 캐주얼: 청바지나 청치마 등 진 소재 의류와 함께 코디네이션 된 스타일.

이지 캐주얼: 특별한 소재나 디테일의 구분 없이 편히 착용할 수 있는 자연스럽고 편안한 스타일.

캐릭터 캐주얼: 뚜렷한 의복 규범이 없고 다양한 상황에서 입을 수 있으며, 개인의 독특한

성격을 강하게 나타낼 수 있는 스타일.

로맨틱 캐주얼: 프릴이나 레이스, 자수 등의 귀여운 느낌의 장식적 디테일과 파스텔 톤의 로맨틱하고 여성적인 이미지 스타일(배수정 외, 2009).

Ⅲ. 연구 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중국패션과 한국패션을 경험한 중국 여자 유학생을 대상으로 중국과 한국 간 캐주얼스타일에 대한 디자인 선호도 비교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중국 여자 유학생의 캐주얼 스타일 선호도

- 1) 중국·한국에서의 캐주얼 스타일 선호도 비교
- 2) 체류기간에 따른 캐주얼 스타일 선호도 비교
- 3) 출신지역에 따른 캐주얼 스타일 선호도 비교

2. 중국 여자 유학생의 중국·한국 간 패션디자인에 대한 선호도

- 1) 중국·한국에서의 선호하는 색상 비교

<표 2> 조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구분 | | 빈도수(명) | % |
|--------------------|----------------|--------|------|
| 출신지역 | 동북지역(심양포함) | 119 | 39.7 |
| | 화북지역(베이징포함) | 74 | 24.7 |
| | 화동지역(상해포함) | 52 | 17.3 |
| | 기타지역 | 55 | 18.3 |
| 한국체류기간 | 1년 미만 | 68 | 22.7 |
| | 1-3년 | 135 | 45.0 |
| | 3년 이상 | 97 | 32.3 |
| 재학상태 | 어학연수 | 53 | 17.7 |
| | 1-2학년 | 82 | 27.3 |
| | 3-4학년 | 105 | 35.0 |
| | 대학원 | 60 | 20.0 |
| 월 용돈 (한국 화폐) | 30만원미만 | 72 | 24 |
| | 30만원이상-50만원 미만 | 116 | 38.7 |
| | 50만원이상 | 112 | 37.3 |
| 월 의복 지출 (한국 화폐) | 10만원미만 | 74 | 24.7 |
| | 10만원이상-30만원 미만 | 187 | 62.3 |
| | 30만원이상 | 39 | 13.0 |

- 2) 중국·한국에서의 선호하는 문양 비교
- 3) 중국·한국에서의 선호하는 소재 비교

2. 측정 도구

본 연구의 실증조사를 위해 한국 패션제품의 사용 경험이 있는 중국 여자 유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그 구성 내용은 스타일 및 디자인, 의류 품목 선호도 및 패션제품의 속성의 평가, 선호 브랜드 등이다. 패션 스타일과 디자인 선호도에 관한 문항은 김효숙·이소영(2001), 동빼이(2010), 유대상(2010), Mete(2006), Horn and Gurel(1981) 연구에 사용된 변인 중에서 캐주얼 스타일, 의복의 색상, 문양, 소재 그리고 의복 품목 관련 문항을 선별하였으며 같은 보기를 ‘중국에서’와 ‘한국에서’로 반복 질문하였으며

총 17 문항 중 스타일과 의복 품목 관련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의복의 색상, 문양, 소재는 명목척도로 측정하였다. 캐주얼 스타일에 관한 질문 문항 중에 사진은 2010~2013년의 삼성디자인 넷과 국내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국내 유명 브랜드의 카다로그 및 잡지기사, 인터넷 홈페이지의 홍보사진들을 수집하여 의류학 관련 교수 3명, 패션디자이너 4명, 석사과정 5명에게 198장을 의뢰하였으며, 이중 조건에 부합된 대표적인 사진 16장이 최종 선정되어 사용되었다. 패션제품의 속성평가에 관한 문항은 Eckman(1990), 옥금희(2006), 홍병숙·나운규(2007)의 연구를 토대로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고 예비조사를 바탕으로 같은 보기를 ‘중국에서’와 ‘한국에서’로 반복 질문하였으며 총 13 문항을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인구 통계적 특성인 연령, 출신지

역, 체류기간, 용돈, 월 의복 지출 비에 관한 총 6문항을 명목척도로 측정하였다. 설문지는 먼저 한국어로 작성된 이후 중국어로 번역되었으며 이를 중국인 의류학과 박사과정, 중어 중문학 교수가 감수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재한 중국 여자 유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의 문항내용과 문항수를 수정한 후, 본 조사 설문지를 작성하여 2013년 4월 16일부터 2013년 4월 23일까지 서울지역에 있는 중국 여자 유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 321부를 배부하여 불성실 한 21부를 제외한 후 최종 300부의 설문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에 의해 분석되었다. 자료에 대한 기술통계, 빈도분석, 교차분석 등을 실시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유의차 검증 및 평균 비교를 위해서 카이제곱(χ^2)의 분석,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증으로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출신지역별로는 동북지역이 119명으로 응답자

총수의 39.7%로 가장 많았고 화북지역 24.7%와 화동지역 17.3% 기타지역 18.3%로 나타났다. 한국 체류기간은 1년 미만이 22.7%, 1-3년이 45%로 가장 많았고 3년 이상은 32.3%로 나타났다. 재학 상태는 어학연수 17.7%, 1-2학년은 27.3%, 3-4학년은 35%, 대학원은 20%로 고루 분포가 되었다. 월 용돈별로 30만원 미만 24%,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38.7%, 50만원 이상이 37.3% 순으로 나타났다. 월 의복지출비로는 10만원미만이 24.7%, 10만원 이상-30만원 미만 62.3%, 30만원 이상은 13.0%로 나타났다(표 2).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중국 여자유학생의 캐주얼 스타일 선호도

1) 중국·한국에서의 캐주얼 스타일 선호도 비교

캐주얼 스타일 선호도에 관한 측정은 5점 리커트형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로 이루어졌다. 캐주얼 스타일이 ‘중국에서’와 ‘한국에서’ 각각 선호도에 차이가 있는지

<표 3> 캐주얼 스타일 선호도 차이의 평균 비교

| | | | 대응차 | | | | | | | |
|---------|----|------|-------|-------|---------|-------------|------|-------|-----|-----------|
| | | | 평균 차이 | 표준 편차 | 평균 표준오차 | 차이의95% 신뢰구간 | | t | 자유도 | 유의확률 (양쪽) |
| | | | | | | 하한 | 상한 | | | |
| 진 캐주얼 | 중국 | 3.42 | .017 | .875 | .051 | .116 | .083 | .330 | 299 | .742 |
| | 한국 | 3.41 | | | | | | | | |
| 이지 캐주얼 | 중국 | 3.03 | .180 | 1.104 | .064 | .055 | .305 | 2.825 | 299 | .005** |
| | 한국 | 3.21 | | | | | | | | |
| 캐릭터 캐주얼 | 중국 | 3.21 | .457 | .951 | .055 | .349 | .565 | 8.317 | 299 | .000*** |
| | 한국 | 3.67 | | | | | | | | |
| 로맨틱 캐주얼 | 중국 | 3.26 | .253 | 1.186 | .068 | .119 | .388 | 3.699 | 299 | .000*** |
| | 한국 | 3.52 | | | | | | | | |

p<.01, *p<.001

알아보기 위해 스타일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평균을 비교하였다. 결과는 <표 3>과 같다. ‘귀하는 다음 캐주얼 스타일을 중국에서 얼마나 좋아 하셨습니까?’에 대한 응답으로 진 캐주얼이 3.7, 로맨틱 캐주얼 3.26, 캐릭터 캐주얼 3.21, 이지 캐주얼 3.03으로 중국에서는 진 캐주얼이 가장 높았고 이지 캐주얼이 가장 낮았다. ‘귀하는 다음 캐주얼 스타일을 현재 한국에서 얼마나 좋아 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으로는 캐릭터 캐주얼 3.67, 로맨틱 캐주얼 3.52, 진 캐주얼은 3.41, 이지 캐주얼 3.21로 한국에서는 캐릭터 캐주얼이 가장 높았고 이지 캐주얼의 선호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각 캐주얼 스타일에 대한 ‘중국에서’와 ‘한국에서’의 선호도 차이를 비교해 보기 위해 대응 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

중국 여자 유학생들은 진 캐주얼을 제외한 이지 캐주얼($p<.01$), 캐릭터 캐주얼과 로맨틱 캐주얼 스타일($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중국에서’와 ‘한국에서’의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낸 것은 캐릭터캐주얼로 .457과 가장 작은 차이는 이지캐주얼로 .180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에서의 트렌드와 패션제품에 대한 경험이 이지, 캐릭터, 로맨틱 스타일을 중국에서 보다 더욱 선호하게 만들었으며 특히 캐릭터 캐주얼에 대해서는 다른 캐주얼보다 선호도

차이가 가장 컸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유학 후 응답자 63.2%가 자신의 의복 스타일이 변화했다’,와 ‘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한국의 유행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분석한 남영란 외(2013)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체류기간에 따른 캐주얼 스타일 선호도 비교

체류기간에 따라 진, 이지, 캐릭터, 로맨틱 캐주얼 스타일의 선호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 후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4>와 같다.

한국 체류기간에 따라 진 캐주얼 스타일을 제외하고 이지캐주얼($p<.01$), 캐릭터캐주얼($p<.001$), 로맨틱캐주얼($p<.001$)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체류기간이 캐주얼 스타일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먼저 로맨틱 캐주얼은 1년 이상과 이지캐주얼과 캐릭터캐주얼은 3년 이상이 되면 선호도에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캐주얼 스타일을 경험했을 때 로맨틱 스타일에 대한 선호도 반응이 가장 빨리 나타났으며 이지스타일이나 캐릭터스타일은 3년 이상 체류해야 선호도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중국 여대생들은 유행에 민감한 의상이나 남성적 이미지의 의상은 선호하지 않으며 활동적이고 자신의

<표 4> 체류기간에 따른 캐주얼 스타일 선호도 비교

| 체류기간 스타일차이 | 1년 미만 (n=68) | 1년 이상-3년 미만 (n=135) | 3년 이상 (n=97) | Total Mean | F-value |
|-----------------|-----------------|------------------------|-----------------|---------------|-----------|
| 진캐주얼 선호도차이 | .456 | .563 | .680 | .577 | 2.407 |
| 이지캐주얼 선호도차이 | .456(B) | .726(AB) | .938(A) | .733 | 6.799** |
| 캐릭터캐주얼 선호도차이 | .441(B) | .556(B) | 1.010(A) | .6767 | 13.722*** |
| 로맨틱캐주얼 선호도차이 | .485(B) | .807(A) | 1.072(A) | .8200 | 9.134*** |

** $p<.01$, *** $p<.001$

Alphabet is the result of post-hoc test(Scheffe test, 1) Games-Howell test) (A>B).

〈표 5〉 출신지역에 따른 캐주얼 스타일 선호도 비교

| 출신지역 스타일 차이 | 동북지역 (심양포함) (n=179) | 화북지역 (베이징포함) (n=74) | 화동지역 (상해포함) (n=52) | 기타지역 (화중, 화남, 서남, 서북지역) (n=55) | Total Mean | F-value |
|-------------------|---------------------------|---------------------------|--------------------------|---|---------------|---------|
| 진 캐주얼 선호도차이 | .588 | .635 | .577 | .473 | .577 | .663 |
| 이지캐주얼 선호도차이 | .622 | .784 | .731 | .909 | .733 | 1.587 |
| 캐릭터캐주얼 선호도변화 | .605 | .716 | .769 | .691 | .677 | .600 |
| 로맨틱캐주얼 선호도차이 | .698(B) | .851(AB) | .731(AB) | 1.127(A) | .820 | 3.192* |

*p<.05

Alphabet is the result of post-hoc test(Scheffe test, 1) Games-Howell test) (A>B).

〈표 6〉 중국·한국에서의 선호하는 색상 비교

단위: 명(%)

| | 무채색 계열 | 노란색계 열 | 녹색 계열 | 파란색계 열 | 붉은색 계열 | 기타 | 전체 | x2 |
|----|-----------|-----------|----------|-----------|-----------|-----------|----------|-----------|
| 중국 | 127(42.3) | 37(12.3) | 13(4.3) | 44(14.7) | 26(8.7) | 53(17.7) | 300(100) | 48.995*** |
| 한국 | 70(23.3) | 35(11.7) | 26(8.7) | 35(11.7) | 16(5.3) | 118(39.3) | 300(100) | |
| 전체 | 197(32.8) | 72(12.0) | 39(6.5) | 79(13.2) | 42(7.0) | 171(28.5) | 600(100) | |

***p<.001

개성을 나타내면서도 우아한 의복이미지를 선호한다고 한 손희정(2000)의 연구 결과의 일부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3) 출신지역에 따른 캐주얼 스타일 선호도 비교

출신지역의 집단에 따라 진, 이지, 캐릭터, 로맨틱캐주얼 스타일의 선호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 후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5>와 같다. 진, 이지, 캐릭터 캐주얼 스타일을 제외하고 로맨틱캐주얼에서만 p<.05 수준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화중, 화남, 서남, 서북을 포함

한 기타지역이 심양을 포함한 동북지역보다 선호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중국 여자유학생의 중국·한국 간 패션디자인에 대한 선호도

1) 중국·한국에서의 선호하는 색상 비교

중국과 한국에서 선호하는 의복 색상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같은 색계열의 보기를 ‘중국에서’와 ‘한국에서’로 반복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p<.001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결과는 <표 6>과

같다. 먼저 중국에서 무채색 계열이 127명(42.3%)으로 가장 선호했으나 한국에서는 기타색을 118명(39.3%)으로 가장 선호하였다. 녹색계열을 제외한 무채색과 전통적인 노란색, 파란색, 붉은색 계열이 줄어든 반면 기타색의 선호가 높아졌다. 이는 중국에서 여성 소비자는 원래 화이트와 블랙 등 무채색 계열을 가장 선호한다는 손희정·김효숙(2000), 유대상(2010), 오현아, 김운아, 배수정(201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체류 후 기타 색으로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중국·한국에서의 선호하는 문양 비교

선호하는 의복 문양이 중국과 한국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같은 색계열의 보기를 ‘중국에서’와 ‘한국에서’로 반복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이에 대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결과는 <표 7>과 같다. 먼저 중국에서 선호했던 의복

문양은 문양 없는 것이 125명(41.7%)으로 가장 많았으나 한국에서는 자연문양이 89명(29.7%)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문양 없는 것은 68명(22.7%)로 감소한 대신 자연문양, 줄문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과적으로 앞에서 나타났던 로맨틱캐주얼의 선호도가 한국에서 더 높아진 결과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3) 중국·한국에서의 선호하는 소재 비교

중국과 한국에서 선호하는 의복 소재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같은 소재의 보기를 ‘중국에서’와 ‘한국에서’로 반복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결과는 <표 8>과 같다. 중국에서 선호했던 의복 소재는 면이 222명(7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기타가 31명(10.3%) 이었다. 한국에서 선호하는 의복소재 역시 면 144명(48%)으로 가장

<표 7> 중국·한국에서의 선호하는 문양 비교

단위: 명(%)

| | 문양 없는 것 | 자연문양 | 체크문양 | 줄문양 | 추상문양 | 기타 | 전체 | x2 |
|----|-----------|-----------|----------|----------|---------|-----------|----------|-----------|
| 중국 | 125(41.7) | 47(15.7) | 30(10.0) | 24(8.0) | 24(8.0) | 50(16.7) | 300(100) | 33.893*** |
| 한국 | 68(22.7) | 89(29.7) | 33(11.0) | 39(13.0) | 20(6.7) | 52(17.0) | 300(100) | |
| 전체 | 193(32.2) | 136(22.7) | 63(10.5) | 63(10.5) | 44(7.3) | 101(16.8) | 600(100) | |

*** $p < .001$

<표 8> 중국·한국에서의 선호하는 소재 비교

단위: 명(%)

| | 면 | 모 | 마 | 실크 | 합성섬유 | 기타 | 전체 | x2 |
|----|-----------|---------|---------|---------|----------|----------|----------|-----------|
| 중국 | 222(74.0) | 11(3.7) | 5(1.7) | 10(3.3) | 21(7.0) | 31(10.3) | 300(100) | 45.073*** |
| 한국 | 144(48.0) | 12(4.0) | 10(3.3) | 26(8.7) | 42(14.0) | 66(22.0) | 300(100) | |
| 전체 | 366(61) | 23(3.8) | 15(2.5) | 36(6.0) | 63(10.5) | 97(16.2) | 600(100) | |

*** $p < .001$

많았고, 그 다음으로 기타 66명(22%) 순이었다.

중국과 한국에서 가장 선호하는 의복소재는 면이었으나 중국에서보다 한국에서는 면을 선호하는 숫자가 줄어든 대신 기타 소재와 합성섬유 그리고 실크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 여자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의복소재는 면이라는 김효숙, 손희정(2000)과 김효숙, 이소영(200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후 한국 체류 후 다른 소재인 합성섬유와 기타소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본 연구는 한국에 유학 온 중국 여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중국에서 선호했던 캐주얼스타일과 색상, 소재, 문양에 대한 선호도가 한국에서 바뀌었는지에 대해 체류기간, 출신지역, 월의복비 지출 별로 비교 분석 하였다. 그에 대한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출신지역별로는 동북지역이 119명으로 전체의 39.7%로 가장 많았고 화북지역 24.7%와 화동지역 17.3% 기타지역 18.3%로 나타났다. 한국 체류기간은 1년 미만이 22.7%, 1년 이상 3년 미만이 45%로 가장 많았고 3년 이상은 32.3%로 나타났으며, 월 의복지출비로는 10만원미만이 24.7%, 10만원 이상-30만원 미만 62.3%, 30만원 이상은 13.0%로 나타났다.

이들의 캐주얼 스타일에 대한 ‘중국’과 ‘한국’에서의 선호도 차이를 살펴보면, 진 캐주얼을 제외한 이지 캐주얼($p < .01$), 캐릭터 캐주얼과 로맨틱 캐주얼 스타일($p < .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장 큰 선호도 차이를 나타낸 것은 캐릭터 캐주얼이었으며 그다음은 로맨틱, 이지 캐주얼 순이었다. 체류기간에 따라서는 진 캐주얼 스타일을 제외하고 이지 캐주얼($p < .01$), 캐릭터 캐주얼($p < 0.01$), 로맨틱 캐주얼($p < 0.01$)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로맨틱 캐주얼은 1년 이상, 이지와 캐릭터캐주얼은 3년 이상 되면 ‘한국’에서 선호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지역에 따라서는 로맨틱캐주얼만이

$p < .05$ 수준에서 화중, 화남, 서남, 서북을 포함한 기타지역이 그 외 다른 지역보다 선호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시사점으로는 한국의 캐릭터나 로맨틱캐주얼 스타일의 패션제품은 중국의 진이나 이지캐주얼 제품보다 더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지역적으로는 화중, 화남, 서남, 서북을 포함한 기타지역에서 로맨틱캐주얼 스타일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중국과 한국에서 선호하는 의복 색상의 차이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중국에서 가장 선호했던 색은 무채색계열이었으나 한국에서는 기타 색으로 바뀌었다. 즉 한국에서 체류 후에는 무채색이 42.3%에서 23.3%로 줄어든 반면 기타 색은 17.7%에서 39.3%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무채색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노란색, 파란색, 붉은 색 계열은 줄어든 반면, 그 외에 다양한 기타 색으로 선호도가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문양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도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중국에서는 문양이 없는 것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나 한국에서는 자연문양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문양 없는 것에 대한 선호도가 감소한 대신 자연문양, 줄문양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현재 한국의 트렌드에 영향을 받은 점도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캐릭터캐주얼과 로맨틱캐주얼의 스타일 선호도가 한국 체류 후 더 높아진 결과와 연관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셋째, 의복 소재에 대한 선호도 차이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장 큰 선호도 차이를 나타낸 것은 면과 합성섬유 그리고 기타이었는데 중국에서 선호도는 면 74%로 기타 10.3% 합성섬유 7.3% 이었으나 한국에서는 면 48%와 기타 22% 합성섬유 14%로 나타났다. 중국과 한국 양쪽에서 가장 선호하는 의복소재는 면이었으나 중국에서보다 한국에서는 면을 선호하는 숫자가 줄어든 대신 기타 소재와 합성섬유를 선호하는 숫자가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들은 캐주얼 기획에 있어 진이나 이지캐주얼의 전통적인 면 소재와 칼라의 경험에서 로맨틱이나 캐릭터 캐주얼의 다양한 소재와 칼라, 문양의 스타일로 선호도가

바뀐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결과적으로 이상과 같이 한국에서 체류 후 스타일, 색, 소재, 문양 등에 대한 중국 여자대학생들의 디자인 선호도 차이가 나타나는 점들은 한국산 의류에 대한 얼리어답터의 집단이란 관점에서 볼 때 한국 패션 브랜드 상품에 대한 중국 본토의 여성 소비자들의 디자인 선호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과 특히 특정 스타일에 대한 출신지역별 선호의 차이점은 중국의 방대한 지역과 다민족 국가로 형성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다면 더욱 시사점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중국에 진출하려는 한국 브랜드들은 중국의 트렌드 흐름을 대도시 위주가 아닌 지역의 특색에 맞는 선 조사가 이루어져야한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결과는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에 효과적인 상품기획 및 디자인을 하는데 의미가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중국 여자대학생으로 한정하여 실증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전체 중국 여자 소비계층으로 확대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조사를 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패션브랜드의 제품에 대한 선호도 차이를 분석해서 한국 패션브랜드 제품의 경쟁력을 예측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조금 더 조사 대상의 분포를 넓히거나 정기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김민지. (2002). 국내캐주얼웨어의 세분시장별 색채 특성과 선호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순분. (2009). 중국유학생의 의복구매실태와 레이블에 대한 인식.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1(6), 887-895.
- 김용숙. (2003). 한국과 중국 대학생의 물질주의성향과 의복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지*, 5(38), 11-20.
- 김해동. (2005). 캐주얼 의류브랜드의 기업중사자와 소비자간 브랜드 포지션 인지 차이.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효숙, 이소영. (2001). 중국 여성소비자의 연령에 따른 의복디자인 선호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1), 1-10.
- 남영란 외. (2013). 중국유학생의 의복구매 및 착용 실태에 관한연구. *한국복식학회지*, 63(6), 40-55.
- 동뽀이. (2010). 서울과 상하이 여성의 캐주얼 스타일 비교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수정, 백정현, 최윤규, 유화정. (2008). 2007년 여름 중국 대련시 여성 스트리트 패션분석. *한국 의류학회지*, 32(11), 1692-1703.
- 변미연, 이인성. (2006). 직장여성을 위한 이지캐주얼웨어 디자인 개발. *한국의류학회지*, 30(8), 1301-1311.
- 손희정, 김효숙(2000). 중국여대생의 의복 선호도에 관한 연구.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지*, 4(2), 85-93.
- 자오링링. (2014). 광둥전남지역 중국 유학생들의 한국의류제품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수진, 최수경. (2011). 한·중 여대생의 남성복 색채 선호도 분석 -톤 인 톤 배색을 중심으로-.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3(4), 69-77.
- 오현아 외. (2012). 2010/11년 겨울 서울시와 다롄시의 스트리트 패션에 나타난 여성 의복 색 비교분석. *한국복식학회지*, 62(2), 103-121.
- 옥금희. (2006). 중국대학생의 의복소평성향에 따른 점포평가기준, 의복평가 기준 및 캐주얼웨어 구매행동에 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국련, 김용숙. (2002). 중국대학생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의복태도 및 구매행동. *한국복식학회지*, 52(5), 15-30.
- 유대상. (2010). 중국유학생들의 의복구매행동과 중국의류시장 진출방안.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지현. (2009). 한국내 중국인 유학생의 의복태도 연구 - 성별, 사회경제적 수준별, 한국거주기간별.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1(2), 153-168.
- 이경림, 박숙현. (2008). 의복의 조형요소에 따른

- 캐주얼이미지 분류. *한국의류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37.
- 이동훈(2009). 새롭게 주목해야할 중국 소비시장. *SERI경영노트*, 28호, 6-9.
- 정화연외(2011). 중국 여대생의 겨울철 의복 착용 활동에 관한 연구 -항주지역을 중심으로-. *한국 의상디자인학회지* 13(3). 135-147.
- 중국의 1~2월 섬유생산동향. 한국화섬협회. 자료검색일 2014. 5. 1, 자료출처 <http://www.kcfa.or.kr>.
- 중국인 유학생은 '미래 친한파'인데(2009.12.11). 중앙일보. 신경진 자료검색일 2014. 5. 1, 자료출처 <http://pdf.joins.com>
- 한-중 양국 함께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야(2009.12.11). 중앙일보. 자료검색일 2014. 5. 1, 자료출처 <http://china.joins.com>
- 홍금희, 유정. (2009). 중국 여자대학생의 유행선도력과 한류 선호에 따른 한국 패션 브랜드 구매 행동. *한국의류학회지*, 33(4), 655-665.
- 홍명숙, 나운규. (2007). 의류 소비자의 제품속성, 가격속성, 쇼핑가치가 인터넷쇼핑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31(7), 1075-1084.
- Eckman, M. Damhorst, M, L. & Kadolph, S. (1990). Toward a Model of the In-Store Purchase Decision Process: Consumer Use of Criteria for Evaluating Women's Apparel.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8(2), 13-22
- Mete, F. (2006). The creative role of sources of inspiration in clothing design. *International Journal of Clothing Science and Technology*, 18(4), 278-293
- Horn, M. J., & Gurel, L. M. (1981). *The second skin, an inter-disciplinary study of clothing (3rd ed.)*. Boston: Houghton Mifflin co.
- FashionDictionary. 삼성패션연구소. 자료검색일 2014. 5. 1, 자료출처 <http://www.samsungdesign.net/Databank/Encyclopedias/FashionDictionary>
- 2012 China Apparel market. 삼성패션연구소. 자료검색일 2014. 5. 1, 자료출처 <http://www.samsungdesign.net/ChinaInfo/IssueReport>